## 배신자를 위한 변명



전형일의 세상이약기

지난 2020년 임영웅은 '미스터트롯' 결 선에서 '배신자'를 불렀다. 자신을 떠나버 린 연인을 '배신자'라고 미워하는 남자의 순정을 표현한 이 곡은 1969년 도성이 처음 노래했다. 보통 리메이크곡은 시대에 맞춰 가사나 멜로디가 조금씩 바뀌기 마련이나 '배신자'는 원곡 그대로다. 이 노래는 중장 년층에 이어 청년층에게도 애창곡이 됐다. 우리 대중문화에서 정서적 감정으로 사용 되던 '배신(背信)'은 서양에서는 천인공노 (天人共怒)할 의미로 사용된다.

우선 기독교에서 가롯 유다는 인류 최악 의 배신자이다. 유다는 예수를 은화 30냥에 팔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했다. 이후 그 는 무죄한 피를 팔았다며 은 30냥을 성소에 던지고 자살했다. 기독교에서는 자살 또한 살인죄에 버금가는 죄다.

역사적으로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 스가 배신자의 상징이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영구집권을 도모하자 원로원의 의원들이 그를 암살했다. 암살에 가담한 14

명의 원로원 의원 중 한 명이 브루투스다. 브루투스어머니세르빌리아는카이사르의 정부(情婦)였다. 아들이 없었던 카이사르 는 그를 친자식처럼 대했다. 이 때문에 카 이사르가 죽을 때 마지막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였다. 이 문장은 믿었던 상대에게 배신당할 때 흔히 사용하는 경구가 됐다.

서양에서 '배신자(betrayer)' 인식은 단 테의 '신곡(神曲)'에 잘 나타나 있다. 서사 시 '신곡'은 지옥•연옥•천당 3부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지옥 편에서 가장 끔찍한 곳은 아래 9단계로 생전에 배신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 물론 여기에는 배신의 대명사인 유 다와 브루투스 그리고 역시 카이사르를 배 반한 카시우스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이 찐 배신 자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예수는 유다의 배 신을 알고 있었다. 예수는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 다"라고 말했다. 또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 도 수탉이 울기 전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 이나 부정하였다. 이 역시 예수는 베드로에 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했다.

부활이라는 계획이 있었던 예수는 예언 만 했지, 예방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 다가 가장 억울한 악역으로 택함을 받은 건 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유다는 용서 못할 배신자로 기억되고, 베드로는 초대 교황으 로 추앙받고 있다.

브루투스 역시 그 당시 일행과 함께 원로 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카이사르 의 독재에 맞서 로마의 공화정이라는 대의 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 때문이다. 이때 그 리스어 판결문의 '잊어 버린다'(Amnesti a)'에서 현재의 '사면'(Amnesty)'이란 단 어가 파생됐다.

언제부터인가 '배신'이 우리 정치권의 전 유물이 됐다. 정치인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주군(主君)의 뜻을 거스르거나 조직을 떠나 면 '배신'이라고 한다. 아마도 '배신'을 예 전 군주제의 '역적(逆賊)'의 개념으로 여기 는 듯하다. 이는 주군의 무능과 부패와 관 계없이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노 예제와 다를 바 없다.

신념은 변할 수 있고 진실을 나중에 알 게 될 수도 있다. 이를 전향이나 회개라고 한다. 이해관계에 따라 변심하고 변절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인류의 원죄는 아 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시작됐 다.누구나 '배신'의 DNA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전 언론인・명리학자・철학박사

#### 오늘의 운세 10월 23일 (음 9월 3일)



36년생 다정다감(多精多感)도 병, 48년생 이웃사촌이 형제보다 낫다. 60년생 상대 의 단점을 캐내지 마라. **72년생** 오늘 하늘에서 떨어진 횡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눠 야 한다. **84년생**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상반되게 배신한다.



**37년생** 인생에 휴식이 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49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밀고 나 가라. 61년생 자격지심으로 고집 피지 않도록. 73년생 닥쳐올 재난을 미리 경계하도록. 85년생 오로지 참는 것이 오늘의 불운을 이겨내는 것.



62년생 음주와 먹는 것에 유의하는 날. 74년생 이제 시작된 사회이니 미래를 재점검 하자. 86년생 건조하여 가려움증이 생기니 마음도 우울.

38년생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기 필요. 50년생 천재라도 노력이 있어야 이어진다.



39년생 계획을 세워 차분히 진행. 51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한계가 있다. 63년생 배려를 하지 않으니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75년생 풍요롭기를 원하면 아직 시기가 남아 있다. 87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겁다.

40년생 미(未)시에 운전 유의. 52년생 일이 성과를 내니 명예가 높아진다. 64년생 다툼

이 일어나니 미리 자중하여 구설에 주의를. 76년생 불확실한 미래지만 인생은 살만



한 가치가 엄청나다. 88년생 1의 숫자와 재색이 행운을. 41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니 인생사 돌고 도는 것. 53년생 학문의 길은 다양하

나 공든 탑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65년생 이사계획은 다음 날에. 77년생 오후치아 건

강을 점검해보자. 89년생 여의주가 손에 들어오니 좋은 일.

력을 키워라. 90년생 가족의 협조로 집안일이 잘 풀어져 나간다



42년생 재물 관련 일은 지장 기도를 해보는 것도. 54년생 태양은 우리 곁에 있다. 66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 78년생 앞날을 대비하는 준비성 즉 실



43년생 집 단장을 하는 날. 55년생 동료와의 우정이 여러모로 도움 된다. 67년생 결혼 할 사랑이 찾아오니 가슴이 벅차다. 79년생 구슬을 꿰듯이 시작하는 시점을 잘 찾자. 91년생 동업자와 실랑이로 마음은 불편해도 재물은 들어온다.



44년생 줄이 길어 기다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56년생 작은 결함으로 일을 망치 니 주의를, **68년생** 물이 깊어야 고기도 모이는 법, **80년생** 여자가 낀 망신살에 주의 를, 92년생 반려견은 기쁨을 같이한다. 그러니 청결하게 하자.



69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81년생 언덕이 변하여 골짜기가 되 듯 변하는 게 인생사인 듯. 93년생 불어오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린다

46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가 있다. 58년생 밑천이 많으니 장사도 큰 이익. 70년생 지치

45년생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 57년생 변동이 있어도 초지일관해야.



기 쉬운 날이나 의외의 곳에서 소득이 생긴다. 82년생 견문과 학식이 풍부해지면서 스스로 겸손해진다. 94년생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니.



47년생 집에서 음식솜씨를 발휘하여 즐겁다. 59년생 마음이 울적할 땐 슬퍼하라. 71년생 신세를 졌던 사람이 고맙게 신세를 갚으러 온다. 83년생 오늘 회의는 내 뜻대 로 찬성표가 더 많을 터. 95년생 인생의 진로를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숙제.

#### 김상회의 四季

태백산, 민족의 심장

태백산은 한반도 등줄기인 백두대간의 한가운데 우뚝 서 있다. 높이 는 해발 1500미터 남짓으로 상징성은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로 물과 생명의 근원이자 한반도의 혈맥을 잇는 뿌리로 여겨진다. 옛사람들은 태백산을 하늘과 땅이 맞닿는 신성한 산이라 부르면서 일부러 찾아와 참배를 올렸다.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볼 때 태백산은 백두대간이라는 용맥이 남한 땅에서 강렬한 기운을 응축시키는 곳이다. 그래서 예로부 터 신성시하고 숭배해왔다. 태백산 자락에는 예로부터 명당이 많았고 그 중심에는 혈자리가 자리하며 산과 물의 생기가 모이는 자리로 맑고 강한 에너지를 내뿜는다. 혈자리는 정기가 맑고 강한 것으로 사방에서 모여드는 산줄기가 마치 용이 몸을 감싸듯 산을 둘러싸고, 그 한가운데 서 물과 바람이 흐른다.

제단과 사찰이 많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상 부근의 천제단 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성스러운 장소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나라 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다. 천제단은 강력한 기운이 맺힌 혈 자리 위에 세워진 상징적인 장소로 자연의 생명력이 극대화되는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단군신화에서도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온 곳이 태백산 신단수로 기록되어 있다. 단군의 맥락에서 보면 태백산은 단순한 산이 아 니라 천손이 내려오는 통로이면서 나라를 세운 성지로 상징되고 있다. 태 백산에 얽힌 전설도 많다. 옛날 천제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는 신 들이 내려와 구름과 바람을 일으키며 길흉을 점지했다고 한다. 지금도 호 랑이의 기운이 서린 산으로 여겨지며 한강의 발원지로 유명한 검룡소는 그곳에 살고 있던 용이 검을 물고 승천해서 그렇게 불린다는 이야기도 전 해온다. 한반도의 혈맥을 잇는 태백산은 심장과 같은 정기를 품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	메트로미	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	:L:02)721–98	00, FAX:02)730	-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	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	206 2002년	l5월28일 제5776	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	0111 2017년	[3월09일 제1880	)호	
본지	는 신문윤리강령 및 _	1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창업자의 명예회복, 조직의 신뢰회복은 별개



기지 수첩

최 빛 나 〈IT부〉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 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적 판단과 별개로 카카오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와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오히려 '면 죄부'로 소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1일 김 범수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 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 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피고인 전원에 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량 매수 만으로 시세조종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공공 인프라처럼 작동하는 상황에서, 기

범죄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 검찰이제 시한 핵심 증언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 하며, 카카오 측의 매수가 경영권 경쟁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사건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경 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당시 하이브가 공 개매수를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려 하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장내 매수를 단행하며 맞섰다. 검찰은 이를 '인위적 시 세 유지'로 규정했으나, 법원은 "경영권 확 보를 위한 경쟁의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법적 판단은 김범수 창업자에게 명예 회복의 의미를 남겼지만, 카카오 조직이 잃어버린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 다. 플랫폼 독점 논란, 콘텐츠 자회사와의 내부거래, 이해상충 구조 등은 단일 사건 이 아닌 누적된 불신의 결과라는 지적이 다. 특히 이용자 기반이 거대한 플랫폼이

술기업의 윤리성과 투명한 거버넌스가 핵 심 과제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카카오의 '법 적무죄'보다 '윤리적 책임'의 출발점이 되 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의 문제는 법을 어겼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거대 플랫폼으로서 신뢰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투 명한 의사결정, 내부 견제, 공정한 시장참 여 원칙이 없다면 다시 같은 논란이 반복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산업이 기술력만으로 평가받는 시대는 지났다.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 운 영, 콘텐츠 유통 등에서 기업의 도덕적 책 임이 시장 신뢰의 기준이 되고 있다. 카카 오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법정의 무죄가 아닌 '사회적 신뢰의 법정'에서 스 스로를 증명하는 일이다.

/vitna@metroseoul.co.kr

문제출제:손호성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문제풀이: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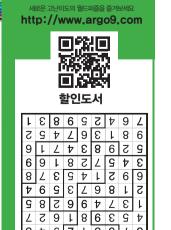
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X3 스도쿠 X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3 8 6 | 5 2 9 4 9 6 5 5 4 8 9 3 5 9 3 1 4 3 8 4 2 8 9 1



	3 -7	Sufficient Face States Fragge States Compa States States Statistics and B. J. J. F. T. and B. J. J. F. T. And St. J. J. J. J. J. And St. J. J. J. J. And St. J. J. J. J. J. And St. J. J. J. J. J. And St. J. J. J. J. J. J. And St. J. J. J. J. J. J. And St. J. J. J. J. J. J. J. J. J. And St. J.	131	2 y and 2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4 y	2	5 4 4 1 5 6	8 7 3 6 5 7 5	3 8 3 5 8 3	7.2
1				3	6			4	
	3			6		8	9		
	2			7	9				
9		4							
9 8	7	3				9	2	6 3	
						4		3	
			3	9			8		
	9	6		5			4		
3			8	1				9	



ε	7	6	٥	ŀ	9	9	7	8	ı
6	L	9	7	ŀ	8	9	Þ	3	ı
ŀ	Þ	3	8	9	7	9	6	Z	
9	8	ŀ	Þ	6	ε	L	9	2	
ε	9	Þ	7	7	6	8	l	G	
9	2	6	9	Þ	ŀ	3	7	8	
2	L	7	3	8	9	Þ	9	6	
8	ε	9	6	Z	Þ	L	2	9	
Z	6	8	ŀ	9	9	7	ε	7	
Þ	G	7	9	ε	L	6	8	ļ	